전호근 <맹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린다>

12강 인간의 재질 자체는 선하다

◆ 1교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 주제는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이른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주장인데요. 성(性)은 맹자에게서는 인간의 본성을 주제로 삼습니다만, 사실 맹자를 포함한 유가학자들은, 순자를 제외해야 되겠죠? 순자는 아시다시피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 순자의 성악편을 같이 읽으면서 맹자의 성선설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가학자들은 맹자가 이야기한 성선설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性'이야 말로 인간과 인간의 차별을, 인간과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모든 존재, 비늘 달린 물고기, 날개 짓하는 새들조차도 본성은 같다(性同鱗羽).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性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동일성,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의 동일성을 확인해주는 범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을 설명할 때 늘 성리학자들은 리(理)로 설명합니다. 그 理가 인간이나 물고기나 새, 구체적인 새 속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명제가 성리학의 명제입니다. 性同鱗羽愛止山壑이란 말은 '본성은 물고기나 새를 막론하고 다 같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산(뾰족하게 솟은 봉우리)과 골짜기에 모두 다 가서 머문다.'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 하면서, 인(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의 글을 쓸 정도입니다.
이건 율곡 이이의 생가라고 하는 오죽헌에 가면 율곡이 직접 새긴 글자로 알려져 있는 탁본이 있어요. 탁본에 써져있습니다. 그만큼 성이라는 범주는 모든 존재를 동일시하는 범주로 확장되어서 설명되곤 하는데, 그 시초가 바로 맹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크게 그른 말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공자에게서도 그런 언급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인간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공자 때라기보다는 맹자시대라고 봐야 되고요, 또 맹자보다 좀 더 치밀하게 논쟁을 펼친 것은 순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맹자의 이야기를 차분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앞에 왕도정치론과 혁명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맹자의 성선론도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도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담론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할 때 그 '인간'은 피치자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피치자인 백성들의 본성을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선으로 표현한 것은 결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정을 베풀어야 되고 백성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하는 정치, 패도를 부정하기 위한 논리로 쓰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주장이 정치적 담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같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맹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www.artnstudy.com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제일 첫 번째 보면 맹자 滕文公下 제 6장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주제는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인데요, 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모두 다 人皆有不忍人之心. 사람들은 모두 다 '不忍人之心', 이때 인은 자기가 아닌 타인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불인, 차마하지 못하는 말. 不忍人之心이죠. 줄여서 不忍之心 이라고도 합니다.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皆有,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맹자의 주장은 그냥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가 아니라, 앞에 '모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사회적 가치로 규정을 하자면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거죠. 그냥 무턱대고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본성은 악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라는 조건이 맹자에게서는 반드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맹자 성선설의 특징이고요. 뒤에 이른바 고자라고 하는 당시의 지식인과 맹자가 논쟁을 펼치는데, 그 고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요 지평이 '모든' 이라는, 모든 인간은 선하다고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장을 한 번 보죠.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하니라.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불인인지심'을 어진마음으로 보고 이게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의 실마리 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죠. 先王有不忍人之心 하사, 선왕들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져서.
斯有不忍人之政矣이시니, 이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베푸셨다.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를 베풀었다. 그게 곧 인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왕도정치 입니다. 以不忍人之心으로 行不忍人之政하면 治天下를 可運於掌上이니라,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를 베푼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잇을 것이다. 이 드넓은 천하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스리는 것처럼 쉽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잇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맹자가 인간에게 그런 불인인지심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논증합니다. 완전한 논증은 아니지만, 맹자가 논증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所以謂 人皆有不忍人之心者는 今人乍 見孺子將入於井 皆有, 이렇게 말하는 까닭,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 어떤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때가 아니라 가정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봤다. 문득 봤다. 이런 뜻입니다. 유자는 어린아이죠. 이게 이른바 '유자입정'의 고사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려 한다.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져 버리면 죽겠죠? 그런 상황을 갑자기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다고 본 게 아니고 갑자기 목격했는데,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皆有怵惕惻隱之心, 출척은 깜짝 놀란다는 뜻입니다. 측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측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은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측은지심이야 말로 맹자가 사람에게 어진마음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중요한 명제인데요. 일단 이걸 보시죠. 어떤 사람이 문득 봤다 이거에요. 뭘? 유자, 어린아이가 막 우물로 빠지려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 출척측은지심을 갖게 된다. 깜짝 놀라고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프게 여기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된다. 이렇게 다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유를 쭉 이야기 하죠. 이런 이런 이유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나오는데요. 非所以內納交於孺子之父母也, 안 '내'자로 되어 있지만 들일 '납'자로 읽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 이유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사귀기 위해서

www.artnstudy.com

가 아니며, 그리고 또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며, 향당붕우, 자기가 사는 고을을 향당이라고 합니다. 그 고을의 붕우들에게, 벗들에게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며, '내가 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거야'라는 식의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非惡其聲而然也, 성은 비난입니다. 비난하는 소리,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여요 어린아이의 어버이와 사귀기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을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반대로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싫어서도 아니고, 저절로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바로 그게 인간 본성이 착하다고 하는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맹자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由是觀之컨댄, 이로 말미암아서 살펴본다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누구나, 그때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건 악행을 하건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렇게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는 사례를 말미암아서 인간 본성을 살펴본다면, 판단해본다면 이러하다.

▲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인간을 판단해본다면 無惻隱之心이면 非人也며,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측'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은'은 상대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이고요. 無羞惡之心이면 非人也며,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는 자신의 불선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고요. '오'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 개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수'고. 수치심을 느낀다. 요즘은 무슨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교육방식을 기피하는 주장도 많지만, 어쨌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반성해보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은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無辭讓之心이면 非人也며, '사'는 다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줄때 받지 않는 게 '사'입니다. 그리고 또 '양'은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을 때 양보하는 마음이 '양'입니다. 이것은 거의 같습니다만 조금조금 차이가 있죠. 無是非之心이면 非人也라,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인데. 이때 '시비'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희라는 학자가 시를 어떻게 풀이했냐면요. 어떤 행동이 선하다는 걸 알아서 옳다고 판단하는 것, 그게 '시'고, 또 어떤 행동이 불선하다는 것을, 악하다는 걸 알아서 그것을 그르다고 여기는게 '비'에요. 논리적으로 옳고 그르다기보다도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이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시비지심인거죠. 그게 주희의 해석이기는 하지만, 사실 맹자의 본래 뜻과 아주 상당히 근접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4가지를 맹자는 사단이라고 그랬죠?

단은 실마리 단자죠, 단서 단. 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4가지를 바로 四端이라고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할 때의 단이 단서, 실마리라는 뜻이고, 또 단초설도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말단의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말단의 뜻은 조금 적절치 않고요. 단초의 뜻이나 단서의 뜻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작이다, 무엇의 시작이냐. 측은지심은 仁,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다. 수오지심은 義,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이걸 확충시킬

www.artnstudy.com

줄 알아야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다음문장에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구요. 어쨌든 맹자가, 그 이전의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4가지 중요한 가치를 四德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유가에서는 지고의 가치입니다. 저걸 추구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사단을 제시하니까 결국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걸 입증해주는 중요한 근거다. 이게 이제 맹자의 생각이고, 맹자는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 그걸 목격한 사람을 비록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도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갑자기 깜짝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일단 그 정도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보죠.

◆ 2교시 인(仁)이라는 마을에 살다

▲ 4단이 있는 것은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由是觀之컨대, 無惻隱之心이면 非人也며,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無羞惡之心이면 非人也며,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無辭讓之心이면 非人也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無是非之心이면 非人也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서를 이야기 하죠. 惻隱之心은 仁之端也오. 측은지심 인지단야오. 불쌍히 여기고 가슴아프게 느끼는 마음은 인의 실마리이고, 인이라고 하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랑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게 포함되어 있어요. 인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공자의 인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나라 때 정이춘 같은 학자는 인을 나눌 때요.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 용어로 불인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손발이 저리고 마비된 것, 이것을 사체불인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불인하다고 하는 것은 손이나 다리 이런데가 중풍이 걸려서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 바늘로 손끝을 찔러도 그 고통이 전달이 안 되면 그걸 불인하다고 표현한거죠. 인이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냐.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불인하다고 한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다쳤는데 나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면 인이되는 거고, 느끼지 못하면 불인이 되는 거죠. 마비가 되는 거죠. 마치 손발이 마비된 것처럼 나타나는게 이제 불인으로 표현한거니까, 아주 절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맹자가 이야기한 측은지심의 은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걸 그만큼 잘 표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로 염두에 두시고요. 羞惡之心은 義之端也오, 수오지심 의지단야오. 의는 올바른 도리, 어떻게 보면 인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힘이라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거죠. 사회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의 실마리이고. 辭讓之心은 禮之端也오, 사양지심 예지단야오. 사는 물건을 받지 않는거고, 양은 양보하는 마음이죠. 물건을 받지 않고 양보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고. 是非之心은 智之端也니, 시비지심 지지단야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의 실마리이다. 지

www.artnstudy.com

혜의 실마리다.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늘 인이 달성되고, 또 뭐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한다고 해서 늘 의가 되고 양보한다고 해서 늘 예가 되고, 옳고 그름을 가진다고 해서 늘 지혜로운 처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실마리가 된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이야기합니다.

人之有是四端也는 猶其有四體也니, 사람에게 이 4단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에게 팔다리, 손발 4개의 사지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4단이 있다. 맹자가 어떤 경우에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부자유친이니 군신유의니 부부유별이니 붕우유신이니 장유유서니, 이런 식으로 오륜을 이야기 할 때는 5개로 이야기하고, 사단을 이야기 할 때는 4가지로 이야기 하고 인의로 이야기 할 때는 2가지로 이야기 하는데, 4단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사체, 사지에 해당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숫자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런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서 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는 自賊者也요,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불능자라고 말하는 자는, 나는 사단의 마음을 밝힐 수 없다.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고. 謂其君不能者는賊其君者也니라. 그 군주들은, 자기 군주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그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 여기서 맹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자포자기'죠. 누구나 사람들은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데, 자포자기자만은 안된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게 자포자기죠.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자포자기자만은 구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은 인을 실천할 수 없다. 의를 말미암을 수 없다.' 포기해버리는 게 자포구요. 그리고 또 기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4단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확충시킬 줄 알아야 한다. 凡有四端於我者를 知皆擴而充之矣면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다 확충시킬 줄 안다면. 若火之始然하며 泉之始達이니, 이를테면 불이 처음 불타오르는 것 같으며, 샘이 처음으로 솟아나오 것과 같으니. 苟能充之면 足以保四海요, 만약 참으로 사단을 확충시킬 수 있다면, 사해를 보전할 수 있고, 천하의 왕노릇할 수 있고. 苟不充之면 不足以事父母니라, 만약 거기서 확충시키지 못한다면,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사단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도정치 대상이 된다는 걸 논의하고, 그리고 또 군왕으로서는 마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마음을 확충시켜서 천하는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칠지만 맹자가 인간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주요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인제 본격적으로 고자라는 당시의 지식인과 논쟁하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치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다 동일하게 파악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기술을 터득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할 번 살펴보겠습니다.

▲ 화살 만드는 사람, 갑옷 만드는 사람

화살 만드는 사람과 갑옷 만드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矢人과 函人인데요. 시는 화살이

www.artnstudy.com

죠. 시인하면 화살 만드는 사람이고, 함인할 때 함은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직업인 화살 만드는 일, 그리고 갑옷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孟子曰, 矢人豈不仁於函人哉. 矢人惟恐不傷人, 函人惟恐傷人.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랴. 맹자는 모든 사람을 다 선하다고 판단하니까 화살 만드는 사람이나 갑옷 만드는 사람이나 다 어진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이렇단 말이에요. 화살 만드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걱정한다. 자기가 만든 화살이 사람을 해치지 못할까 걱정한다. 시인이 화살을 제대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그 화살이 사람을 해칠 수 있어야 제대로 만들어진 화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고 또 반대로 갑옷 만드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염려한다. 사람이 다칠까 염려한다. 갑옷 만드는 사람이 그 갑옷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화살이 날아와도 그 갑옷에 저지당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마음씀씀이가 다르잖아요. 巫匠亦然하니. 무당과 관을 만드는 사람도 또한 그러한 것이니. 무는 무당이죠. 장은 목수구요. 무당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원래 이게 무라고 하면은 巫醫라고 해서요, 논어에도 무의라고 하는 용례가 나옵니다. 무당과 의원,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무당과 의원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무당이 곧 의원이고 의원이 곧 무당이었어요, 고대사회에서는. 이제 '의'자도, 독한 술을 부어서 사람을 치료할 때 쓰는 건데요. 그런 의미를 지닌 건데, 이 술을 의미하는 글자가 아니라 무자가 밑에 들어가 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무당과 의원이라는 게 본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병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다스리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무당이라든지 또는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살풀이 굿이라든지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정신적 안정을 찾아줌으로써 치료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담당하는 것이 무이기 때문에, 무는 어쨌든 사람이 살아나야 이로운 사람이니까 늘 어떤 사람이 살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이로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장은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의 주요한 일중에 棺槨을 짜는 거죠. 관은 내관이고 곽은 외곽인데, 어쨌든 사람이 죽어야 이 관을 짜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람 죽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화살이 사람을 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자기 갑옷에 의해서 사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씀씀이가 반대로. 그리고 또 무당과 목수는, 무당은 사람이 살아야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살기를 바라고, 목수는 사람이 죽어야 관이나 곽을 짜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람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마음씀씀이가 인제 반대가 된다 이거에요. 반대가 되니까 맹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故로 - 그렇기 때문에. 術不可不愼也, 기술을 익히는 일은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 그런 일이 사람의 마음에 정서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택하는 직업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이라면 사실 우리가 뭐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선택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하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즉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맹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떤 곳에 머무느냐?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단순 환경이 아니라요, 인과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孔子曰里仁이 爲美하니 擇不處仁이면 焉得智리오.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맹자가 공자의 말을 인용한건데, 논어 里仁편에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리인편의 해석도 아주 다양합니다만 일단은 어진 마을에 산다. 이 '리'자는 고을이라는 뜻이

www.artnstudy.com

지만, 여기서는 어떤 마을에 산다. 이렇게 풀이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인이라는 마을에 사는거예요. 인이라는 마을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니 가려서 인에 머물지 못하면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맹자의 인용입니다. 夫仁은 天之尊爵也며 人之安宅也어늘 莫之禦而不仁하니 是는 不智也니라. 무릇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존귀한 벼슬이고, 또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인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 인에 머물지 않으니, 인을 실천하지 않으니 이것은 지혜롭지 못해서이니라. 맹자는 마치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심성이 좌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환경은 인과 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居仁由義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집에 살고, 의라는 길을 다닌다. 인에서 살고 의를 말미암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인의니까, 실제로는 외부에 존재하는 환경이라기보다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인과 의라는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실천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칫하면 맹자가 환경론자가 돼버리고,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오해는 뒷부분을 잘 읽어보면 하지 않게 되겠죠.

▲ 인을 실천하는 일은 활 쏘는 것과 같다

7장의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仁者는 如射하니. 인을 실천하는 일은 활 쏘는 것과 같다. 射者는 正己而後發하여 활을 쏜다는 것은 자기를 바로 잡은 뒤에 화살을 쏘아서 發而不中이라도 不怨勝己者요. 쏘아서 적중치 못하더라도, 중은 이제 원래 가운데 중자가 과녁이 있으면 과녁의 한가운데를 딱 꿰뚫은 모습을 그린 게 가운데 중자 입니다. 적중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시라카와 시즈카 같은 경우는 옛날 전쟁을 할 때, 좌군, 우군, 중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군이 그 군대의 사령관이 위치하는 곳이고, 그 바로 중군을 나타내는 깃발을 꽂은 곳이 가운데 중자의 뜻이다 이러는데, 적중의 뜻으로, 화살의 뜻으로 봅니다. 꽂힌 화살의 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중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도 이해가 되요. 중자 하나만으로도 적중한다는 뜻이 되니까, 어떤 것이 문자의 근거가 되는가. 이것은 서로 판단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활쏘기에 자주 비유를 하는데, 쏘아서 화살이 적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反求諸己而已矣니라,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잘못된 이유를 찾는다. 자기반성을 통해서 자기가 인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한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인제 인을 실천하는 것을 활 쏘는 것과 비유해서 썼는데, 이런 경우는 맹자도 그렇고요, 논어에도 군자의 스포츠가 나오고, 중용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활을 쏜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직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뭐 모든 스포츠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어쨌든 뭐, 축구를 한다고 그러면 상대편의 골에 공을 넣어야 이기니까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활쏘기는 상대가 잘 쏘았다고 해서 내가 그로 인해서 못 쏠 이유가 되지 않고, 상대가 못 쏘았다고 해서 내가 잘 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올바르게 쏘면 화살이 적중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수양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활쏘기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건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맹자가 제시한 그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실마리는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맹자가 인간 본성에 관한 그 본격적인 논의를 고자라는 당시의

www.artnstudy.com

지식인과 논쟁하면서 이야기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

www.artnstudy.com